

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	학번	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바탄반도주립대학	기간	2018.6.30.(토) ~ 2018.7.27(금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 바탄반도주립대학은 수빅의 밀립보존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위험한 일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. 학교는 5층으로 되어있는 작지도, 크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였고 그 곳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곳 선생님들 덕분인지 항상 밝고 활기찼습니다.
수업	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어요. 그 중 4개는 일대 일 수업이고 4개는 그룹수업인데 그룹수업은 첫날 시험 본 등수대로 5명씩 짜주시는 것 같아요. 매 수업은 1시간씩 진행되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늘 훌쩍 지나갔던 것 같아요. 특히 일대 일 수업은 더 그랬어요. 매 수업이 다른 교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8개의 교재를 첫날 받게 되고요 그 중에 해커스 토익 스피킹 교재가 있고 단어 공부하는 책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 영어회화교재 같은 책이었어요. 수업준비나 큰 과제랄 건 딱히 없었어요. 가끔 가벼운 과제들만 내주시고 수업준비도 필요한 건 없었지만 저는 가끔 가볍게 예습하거나 수업이 끝나면 특히 단어수업 같은 경우 까먹지 않으려고 복습은 늘 했습니다.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어요.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이나 가르치는 실력을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도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잘못발음하시거나 유창하게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저는 그것 때문에 초반에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제가 그분들한테 원어민 같은 실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어느 정도 영어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캐나다 같은 곳으로 어학연

	수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실력에 상관없이 스피킹은 확실히 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만약 그곳에 가시게 된다면 최대한 많~이 말하고(특히 일대 일 수업 때) 말할 때 문법, 발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많이 내뱉어보는 게 실력이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.
Activity	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 수업외의 액티비티는 안바야코브 리조트, 마닐라투어로 주말을 이용해서 총 2번 갔어요. 원래 요트투어도 있었는데 저희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됐었어요. 안바야코브 리조트에서는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자유시간이 3~4시간? 정도 주어지는데 그동안 바다나 수영장에서 놀 수 있었고 준비물은 수영복정도만 필요했어요. 그리고 마닐라투어는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10시쯤 도착했는데 그 곳에서 조끼리 하는 미션을 수행했어요. 미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있었는데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. 근데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. 호세 리잘 파크를 갔었는데 그곳에 대한 설명을 많이 못 들었고 여유롭게 둘러보지 못했거든요. 그리고 미션을 다 마치면 Mall of Asia라는 대형백화점에서 자유시간이 3시간정도 주어지는데 그 때 다양한 기념품을 많이 살 수 있었어요.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현지 기후 및 유의점 저희는 우기시즌에 가서 날씨가 정말 옷겼어요. 비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해가 쨍 나고 또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. 그 곳에 있는 동안 날씨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어요. 그래도 덕분에 많이 덥지 않은 날씨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교실을 포함한 실내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긴팔은 꼭 챙겨 오셔야 해요!
안전	현지 안전 상황

	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사람들이 무서웠던 적도 없었고 저는 밤에 밖에 혼자 나갔다가 들어 온 적도 있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. 제가 원래 겁이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머물렀던 그 곳 분위기와 사람들은 전혀 겁낼 필요가 없었습니다. 제가 만났던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모두 친절했고 따뜻했어요. 건물마다 경찰복을 입으신 분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저희 SLC가 있는 수빅 지역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.
숙소	학교기숙사(☒) 홈스테이(☐) 외부 숙소(☐) 기타(☐)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사실 가기 전에 숙소걱정을 꽤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환경이었어요. 깔끔하고 넓었고 이틀에 한번 씩 청소나 빨래를 다 해주셔서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. 가장 걱정했던 벌레도 사실 별로 못 만났어요. 저희 숙소 방에서 가장 많이 본 벌레는 개미였고 다른 벌레는 도마뱀이나 장수풍뎅이, 나방 정도였어요. 어떤 방은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바퀴벌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
식사	학교식당(☒) 홈스테이(☐) 외부식당(☒) 기타(☐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 밥은 무난한 한식이었습니다. 가끔 바나나 튀김 같은 현지음식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.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은 가끔 부실하게 먹어야할 때도 있을 텐데 다른 반찬을 더 달라고 하시면 더 주시구요 저는 고기를 안 먹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밖에서 먹었던 필리핀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금 짝어요. 그래서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도전해보세요~ 그리고 본인이 장이 약한 편이라면 음식점에서 주는 물은 절대 마시지 말고 물을 사서 들고 가세요. 저는 장이 튼튼해서 아무 물이나 다 마셨는데도 멀쩡했지만 물갈이로 고생했던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.
교통	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 숙소와 학교가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8시에 수업이 시작이지만 7시 59분에 나가도 늦지 않고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평일에 수업을 마치고 시내로 나갈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샌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요, 아니면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갈 수도 있어요. 시내에서 학교로 돌아올 때는 택시나 버스 중 하나를 타야하는데 택시는 보통 150페소정도였고 버스는 인당 14페소였어요. 그래서 택시는 여럿이 탈수록 저렴하게 이용할

	수 있습니다. 그 곳에 지내는 동안 교통에 불편을 겪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.
--	---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유학허가증(SSP), 여행자보험	727,000	출국 전 사전 납부
환전	300,000	식사비, 교통비, 기념품, 액티비티 비용
합계	1,027,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

가기 전에 그 곳에서 한 달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스피킹을 늘릴거라던지 단어를 많이 익힐 거라던지 현지 문화를 배울거라던지 하는. 왜냐하면 아무런 목표 없이 가면 그곳에서 쉽게 의욕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.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쪽 수업이 있을 테고 분명히 피곤 할 때도 있을 텐데 내가 여기에 왜 와있는지 목적이 확실히 있다면 기운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곳에서 토익공부는 하지 않아요! 토익 점수를 높이려고 오는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해요. 토익 점수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걸 배우는 수업은 없어요. 대신에 토익 스피킹 수업이 있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공부하러가는 곳이니 열심히 배우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!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그 곳에 도착하고 처음 며칠은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수업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기대하던 수준이랑 너무 달랐어요. 그래서 잠깐 후회도 했었는데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에든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날이 갈수록 선생님들이랑 친해지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바로 적응이 돼버렸고 말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실력이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뭐든 처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영어 외에도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. 사실 그 곳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왔다고 생각해요.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지금 저는 토익 스피킹을 좀 더 공부한 뒤 시험을 쳐볼 계획입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 볼 생각이예요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